

# 앵무새 경제학의 진화: 19세기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공급과 수요’\*

인 경 환\*\* · 김 진 방\*\*\*

**【요약문】** ‘공급과 수요’는 평이한 듯하면서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제 용어다. 이백여 년 전에는 더욱 그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랬다. 본 연구는 182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에서 출간된 경제학 교과서가 ‘공급과 수요’를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본다.

‘수요’는 그 의미가 안정화된 뒤 한계효용이론의 도움으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과 시장가격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정착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은 걸렸으나 순조로웠다. 이에 비해 ‘공급’은 두 차례의 의미 변환을 거친 뒤에도 생산자의 이윤극대화과 시장가격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혼란을 거쳤고, 그 혼란은 1920년대 교과서에서도 계속된다.

**【주제어】** 경제학 교육, 경제학 교과서, 공급과 수요

\*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박사과정(i\_was\_a\_car@inha.edu)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jkim@inha.ac.kr)

## I. 머리말

“앵무새에게 ‘공급과 수요’라고 말하게 가르치면, 그 앵무새는 경제학자가 된다.”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1910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경제학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유머다(Fisher, 1910, p. 133).<sup>1)</sup> 그 교과서가 이 유머를 인용한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을 묻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답한다면, “그 답은 항상 맞으나 무엇도 설명하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분석이 없는 ‘공급과 수요’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공급과 수요’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호도하기 위한 용어로도 받아들여졌다. 일찍이 Carlyle(1853, p. 9)은 “삼라만상의 비밀을 ‘공급과 수요’에서 찾으면서 통치자의 임무를 방임으로 축소하는 ... 음울한 과학”을 조롱했다. Thornton(1866, p. 420; 1869, p. 43)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들먹이며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이들을 향해 일갈했다. “누구나 다들 공급과 수요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회의와 비판에 근거가 없지 않음은 19세기 초반과 중반의 여러 경제학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과 수요’는 흔히 사용하는 주요 용어인데도 그 정의가 흔들리고 분석은 드물었다. 그렇지만 Thornton의 비판에 자극받아서인지 19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분석이 있었고, 뒤이어 경제학 교과서도 바뀐다. 한계효용과 연결하여 수요를 설명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생산과 동일시하면서 비교정태분석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변화는 단순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았다. 경제학 교과서의 변화는 더욱 어지럽다. 그 어지러운 변화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교과서에 실린 공급과 수요의 이론을 살펴보려는 것은 **생산된** 이론이 아닌 **소비된**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론을 만들고 바꾸는 학자가 있고, 그 이론을 배우고 익히는 학생이 있다면, 교과서는 양자를 잇는 매체 중 하나다. 교과서 저자의 선택과 해석으로 만들어진 매체다. 이 매체에 실린 이론이 곧 소비된 이론은 아니지만, 둘은 상대적으로 가까울 것이다.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학생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이 논문에서 검토하려는 경제학 교과서는 1820년대부터 백여 년에 걸쳐 출간된

---

1) Fisher는 3년 앞서 출간한 저서에서도 이 유머를 인용했다(Fisher 1907, p. 6).

것이다. 공급과 수요의 이론이 백여 년 동안 겪은 변이와 선별을 확인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흥미로울 수 있고, 이론의 교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요즘 교과서에서 만나는 이론은 오류와 혼란을 제거한 결과인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배제한 결과인데, 제거와 배제는 곧 은폐일 수 있다. 은폐된 오류와 혼란은 반복하기 쉽고, 은폐된 가능성은 무시해 버리기 쉽다. 이 논문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논문의 검토 대상은 미국 대학교의 경제학 원론 강의를 염두에 두고 저술한 교과서로 한정한다. 대학교 부설 기관과 중등학교도 경제학 강좌를 개설했는데, 이를 위한 교과서는 제외한다. 영국에서 출간된 경제학 교과서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었지만, 두 나라의 경제학 교육이 많이 달라서 함께 다루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제한해도 150종이 넘는 교과서를 들여다보아야 했다.

이 논문은 머리말과 맺음말 사이에 세 절을 배열한다. 2절은 경제학 교과서가 시장가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급과 수요’의 개념 변이를 분석한다. 3절은 가치와 효용 그리고 수요를 구별하고 연결하는 여러 논의를 검토한다. 4절은 새로 정의된 공급과 생산비를 둘러싼 혼란을 분석하는데, 그 혼란이 1920년대를 지나서야 정리되기에 이 논문에서의 분석은 제한적이다.

## II. 시장가격을 규율하는 ‘공급과 수요’

1837년에 출간된 Wayland의 『경제학 요론』에서 ‘공급’과 ‘수요’를 함께 포함하는 문장을 찾으면 서른네 개가 보인다. 그 가운데 ‘공급’이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물여섯 개다. 두 용어가 따로 사용되는 경우는 훨씬 더 많다. 1866년에 출간된 Perry의 『경제학 요론』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도 여럿 보인다.

‘수요’와 쌍으로 사용되는 ‘공급’은 영국 경제학 특유의 용어다.<sup>2)</sup> Smith(1776)는 『국부론』에서 시장가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시장에 실제로 반입된 수량”과 수요 사이의 비율을 지목했는데, 후학들은 이 비율을 ‘공급’과 수요 사이의 비율로 바꿔

2) 영어의 ‘supply and demand’와 프랑스어의 ‘offre et demande’는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Say의 『경제론』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la quantité offerte’도 영역본에서는 ‘the quantity offered’가 아닌 ‘supply’로 옮겼다. 독일의 대표적 경제학 교과서도 Angebot로 썼는데(Rau, 1826; Mangoldt, 1863), 이 단어는 프랑스어의 offre와 그 의미가 같다.

했다.<sup>3)</sup>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공급’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수량”을 가리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836년에 출간된 Senior의 『경제과학 개요』와 1848년에 출간된 Mill의 『경제학 원론』 사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요’를 두고서는 일찍부터 혼란이 있었다. 그것이 때로는 구매의 크기를 가리키고 때로는 구매의 세기를 가리킨다는 지적이 있었고(Malthus, 1827, pp. 44-5; pp. 244-6), 상품의 효용 또는 상품을 가지려는 욕구의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Senior, 1836, p. 135). 이런 혼란은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량’이란 개념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텐데, 이 개념은 1821년에 출간된 Say의 『경제론』 영역본에서 찾을 수 있다.

## 1.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량

Say의 『경제론』에서 그렇듯이, Wayland의 『경제학 요론』에서도 ‘수요’는 구매하려는 수량이며,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량이다.

[생선] 가격 하락의 결과로 생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이다. 즉,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예전보다 많은 수량을 원할 것이다. (Wayland, 1837, p. 9)

여기서 ‘수요’는 분명 수량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은 가격이 하락하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한다. 그런데 가격 변동의 결과가 아닌 원인이 되는 ‘수요’ 변동도 있다.

어떤 이유로 예전보다 두 배로 많은 사람이 생선을 원한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 생선의 교환가치가 오를 것이다. ... 그러므로 수요가 클수록 교환가치가 크다. (Wayland, 1837, pp. 10-11)

3) 1817년에 출간된 Ricardo의 『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인용하면, “상품의 가격을 궁극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생산비용이며, 흔히 말하듯이 공급과 수요 사이의 비율이 아니다.” Ricardo에 앞서서, 그리고 그와 달리 긍정적으로 ‘공급과 수요’를 사용한 경제학자로 Malthus를 들 수 있다. Thweatt, 1983; Groenewegen, 1973 참조.

여기서 ‘수요’는 주어진 가격에서의 수요량을 가리키며, 그것은 예전보다 크거나 적다. 그리고 그 수량이 바뀌는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넷 가운데 첫째와 둘째로 거주민의 수와 그들의 부(wealth)를 든다.

Wayland는 ‘수요’를 사용할 뿐 정의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Perry의 『경제학 요론』에는 정의로 볼 만한 진술이 있다.

수요라고 불리는 것은 상품과의 교환에서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준비한 돈이다. 이것은 상업 용어이며, 충분히 정확하다. (Perry, 1866, p. 68)

여기서 ‘돈’은 구매자가 지급하는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에 구매량을 곱한 지출액일 텐데, 상인에게는 매출액이다. 가격에 따라 바뀌는 구매량은, 두 수량이 정확히 반비례하지 않는다면, 가격에 따라 바뀌는 지출액 또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없다. “값이 내려간 물품의 소비자 수 확대”를 언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지출액 또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Perry, 1866, p. 71).

이처럼 29년의 간격을 두고 출간된 두 경제학 교과서가 모두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요량’을 명시적으로 전제하면서 시장가격을 설명하지만, 각 가격에서의 수요량 증가를 가리킬 때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를 가리킬 때도 ‘수요 증가’로 쓴다. 더욱이 Perry는 ‘수요’를 지출액 또는 매출액과 동일시하여 독자를 더 혼란스럽게 한다.

각 가격에서의 수요량 증가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를 모두 ‘수요 증가’로 쓰는 관행은 오래 지속되었다. 그런 중에도 둘을 뚜렷이 구별해서 기술하는 교과서가 나오는데, 1885년에 출간된 Newcomb의 『경제학 원론』이 그 예다. Newcomb은 “가격과 수요의 법칙”으로 둘을 제시한다. 첫째,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감소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 둘째,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그 상품의 시장가격을 높인다.” 그리고 각 법칙은 전제로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을 포함한다고 강조하는데, 둘째 법칙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에 해당 상품의 가격을 포함한다(Newcomb, 1885, pp. 217-221). 저자가 그리지 않은 그림을 사용해서 말하면, 첫째 법칙은 수요곡선의 기울기에 관한 것이고, 둘째 법칙은 수요곡선의 이동이 가져올 변동에 관한 것이다.

수요곡선을 포함하는 그림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은 1896년 이후다.<sup>4)</sup> 이 해에

4) 1896년에 출간된 Davenport의 『경제학 개요』에도 좌표 평면 위에 수요와 공급을 각각 직선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세로축이 가격이 아니라 “수요의 세기” 또는 “생

출간된 Hadley의 『경제학』은 가로축이 가격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수량을 나타내는 좌표 평면에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일련의 관계 전부를 나타내는 수요곡선”을 그린 그림을 제시하고,<sup>5)</sup> 이어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함께 그린 그림을 제시한다 (Hadley, 1896, pp. 77-82). 그러나 수요곡선의 이동을 포함하는 그림은 없다. 그런 그림을 사용할 만한 진술도 없다. 달리 말하면, Hadley의 『경제학』에는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낼 수요 변동에 대한 비교정태분석이 없다.

Hadley의 『경제학』에 이어 여러 교과서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그린 그림을 제시하는데,<sup>6)</sup> 수요곡선의 이동을 나타내는 그림은 1910년에 출간된 Fisher의 『경제과학 개론』에서 비로소 볼 수 있다. 저자는 이 그림을 제시하면서 “수요곡선 전체의 이동”은 동일 수요곡선 위에서의 이동과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공급곡선 이동에 따른 거래 수량과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는 그림을 먼저 제시하고, 이어서 수요곡선 이동에 따른 거래 수량과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시한다. 수요곡선 이동의 예로서는 “예술품에 대한 미국민의 태도 변화”를 든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 증가”는 오로지 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Fisher, 1910, pp. 246-249).”

## 2. 판매하려는 수량으로서의 공급

앞에서 말했듯이, 영국 경제학에서 ‘공급’은 Smith가 말한 “시장에 실제로 반입된 수량”을 대신하는 용어였다. 그런 의미의 공급과 수요 사이의 비율이 가격을 규율한다는 설명도 통용되었다. Wayland의 『경제학 요론』에서도 수요와 수량적으로 비교되는 ‘공급’은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 점에서는 Perry의 『경제학 요론』도 다르지 않다. ‘공급’을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점에서도 둘은 같다. 정의도 설명도 없이 ‘공급’을 사용하면서 “시장에 있는 수량” 또는 재고(stock)

산자의 희생”을 나타낸다(Davenport, 1896, p. 42).

5) 관행으로 굳어진 방식은 Hadley의 그림과는 달리 가로축이 수량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가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1890년에 발간된 Marshall의 『경제학 원론』이 채택한 방식이다. Humphrey, 1992; Page, 1980; Gordon, 1982 참조.

6) Blackmar, 1900, Book 3, Chapter 1; Fetter, 1904, Part 1, Chapter 5; Ely et al., 1908, Part 4, Chapter 11; Taussig, 1911, Book 2, Chapter 10. 이 넷 중 첫째를 제외한 셋의 그림은 가로축이 수량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가격을 나타낸다. 수요곡선은 그리지 않았지만,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수열 조합으로 나타낸 교과서도 있다. 예를 들면, Bullock, 1897, Chapter 7; Ely and Wicker, 1904, Part 3, Chapter 2; Johnson, 1909, Chapter 2.

와 구별하지 않는다.

1838년에 출간된 Vethake의 『경제학 원론』은 다르다. 상품의 공급과 그것에 대한 수요 사이에서 교환가치가 결정된다고 말할 때,

상품의 공급은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에 판매자의 소유로 편입되어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offered for sale) 수량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된 공급은 ... 판매자가 보유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량 또는 **재고**와 조심스럽게 구별해야 한다. (Vethake, 1838, p. 41)

저자는 이처럼 “시장에 실제로 반입된 수량”과는 다른 의미로 공급을 정의했으며, 그 공급의 증가와 감소가 각각 가져올 가격 변동을 설명했다. 그렇지만 그 공급 증감의 원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 증감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Perry의 『경제학 요론』이 보여주듯이,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수량으로서의 공급은 한동안 주목받지 못한 개념이다. Wayland의 『경제학 요론』을 Chapin이 재구성하면서 교환에 관한 절을 추가한 1878년 판에서도 ‘공급’은 여전히 “시장에 있는 매도 가능 수량”이다(Wayland and Chapin, 1878, p. 265). 그런데 1883년에 출간된 Walker의 『경제학』은 달랐다. 저자는 한 절을 할당하여 “재고와 공급의 다름”을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수량으로서의 공급은 가격에 따라 바뀌며, 그러한 공급이 수요와 함께 가격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공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려는 것은 각각의 가격에 제공되는 상품의 수량이다. 어떤 가격에서는 공급이 재고의 작은 부분일 수 있다. ...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재고의 점점 더 큰 부분이 공급을 이룰 것이다. ... 심지어 공급이 재고 전부보다 커질 수도 있다. ... 상품에 대한 수요와 연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재고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공급이다. (Walker, 1883, pp. 107-8)

앞에서 보았듯이, 가격에 따라 바뀌는 의도로서의 **구매** 수량은 Wayland의 『경제학 요론』에서도 찾을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가격에 따라 바뀌는 의도로서의 **매도** 수량은 Walker의 『경제학』에서 비로소 적시된 개념이다.<sup>7)</sup> 그 후 여러 교과서가

7) 여기서 ‘비로소’라고 한 것은 필자가 찾아본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 가운데 처음이기 때문이다. Mill은 Thornton의 『노동론』에 대한 서평에서 가격에 따라 바뀌는 의도로서의 매도 수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Mill, 1869, pp. 512-3), Cairne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개념을 비판한

이 개념을 채택한다. 공급의 개념 변경은 9년의 간격을 두고 출간된 Ely의 두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889년에 출간된 『경제학 개론』에서 인용하면,

공급은 어느 주어진 순간에 고정된 수량일 텐데, 수요는 무엇인가? ... 수요는 어떤 가격에서는 공급에 미달할 수 있고, 다른 가격에서는 공급을 초과할 수 있다. (Ely, 1889, p. 179)

공급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이 없지만, “시장에 실제로 반입된 수량”으로서의 공급과 다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반해 1908년에 출간된 『경제학 개요』 개정판에서는 공급이 의도로서의 매도 수량이며,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량이다. 이 개정판은 Ely가 세 명의 동료와 함께 저술했는데, 그 사실이 이런 차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가격에 따라 바뀌는 의도로서의 매도 수량이 공급의 새 정의로 널리 채택되긴 했으나 그 수량의 결정 원리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래도 애써 찾으면, 가격 하락에 따른 공급 감소와 관련해서 철회(withdraw), 유보(reserve), 보류(hold back) 등의 단어를 사용한 문장이 보인다. 그리고 미래의 사정 또는 그에 대한 예견이 언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가격이 낮으면 매도하려는 양이 줄고, 재고의 나머지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유보된다(Hadley, 1896, p. 81).”<sup>8)</sup>

새로 정의된 공급은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량이며, 좌표 평면에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두 변수의 관계다. 그 곡선을 그린 그림이 Walker의 『경제학』에는 없으나 Hadley의 『경제학』에는 있다. Ely와 세 저자의 『경제학 개요』 개정판에도 공급곡선을 수요곡선과 함께 그린 그림이 있다. 앞에서 수요곡선과 관련하여 언급했듯이, Fisher의 『경제학 개론』에는 공급곡선의 이동을 그린 그림도 있다. 그런데 Fisher는 가상 사례를 사용한 설명에서 공급곡선의 이동을 생산조건의 변동과 연결한다. 공급곡선 자체에 대한 설명에서는 공급곡선의 기울기도 생산조건과 연결한다. 또다시 바뀐 내용의 ‘공급’을 제시한 것인데, 이에 대한 검토는 4절로 미룬다.

다(Cairnes, 1874, pp. 34-40). 그리고 Walker는 『경제학』에서 ‘수요’의 의미와 관련하여 Thornton을 인용한다(Walker, 1883, p. 93). 김진방(2011) 참조.

8) ‘매도 유보’는 Thornton이 『노동론』에서 기존의 가격이론을 비판하면서 그 근거로 사용한 개념이다. 이에 대해 Mill은 매도 유보 또는 철회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기존의 가격이론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 3. 유량 또는 저장

Walker가 『경제학』에서 공급과 재고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강조한 사실은 공급은 가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Hadley는 『경제학』에서 재고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지적한다.

공급은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량인 데 반해 재고는 가격과 무관한 수량이라는 지적은 다른 여러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다. 바뀌지 않는 수량을 강조하기 위해, Hadley가 그랬듯이, **절대** 수량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앞에서 인용한 Ely의 『경제학 개요』 개정판에서는 재고 또는 잠재 공급을 가리켜 **확정** 수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공급과 재고를 비교하면서 **가격**과의 관계가 아닌 **시간**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지적하는 교과서도 나타났다. 공급은 저량이 아니고 유량이라는 것이다.<sup>9)</sup> 1911년에 출간된 Taussig의 『경제학 원론』에서 인용하면,

[상품은 대부분] 불췌 제공되는 재고(stock)가 아니라 흐름으로(in a flow or stream) 시장에 들어온다. 상품의 반입률,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제공되는 수량은 가격에 달려 있다. 높은 가격은 그 흐름을 더 빠르게 하여 더 큰 공급으로 이끌고, 낮은 가격은 그 흐름을 제한한다. (Taussig, 1911, p. 145)

사실 Taussig보다 73년 앞서 Vethake가 『경제학 원론』에서 유량으로서의 공급을 강조했다. 2.2절에서 인용한 구절 일부를 다시 인용하면, “상품의 공급은 어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공되는 ... 수량으로 이해해야 한다.” 1885년에 출간된 Newcomb의 『경제학 원론』에서도 “공급은 한 해 또는 어떤 단위 시간에 걸쳐 판매를 위해 시장에 반입된 총량”이다(Newcomb, 1885, p. 217). 그렇지만 이 둘은 매우 드문 예외이며, Taussig의 『경제학 원론』 이후에도 공급과 관련하여 유량과 저량을 차이를 설명하는 교과서가 많지 않다.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교과서도 있다. 고치지 않은 장

9) 경제학에서 유량과 저장의 구별이 분명해지고 중요해진 계기는 Fisher의 1896년 논문이다. Fisher는 이 구별을 1910년에 출간된 자신의 『원론』에서 자본과 소득에 적용했고, 공급과 관련된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해에 영국에서는 Wicksteed가 공급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흐름이며, 모든 것이 공급률의 문제로 환원된다고 강조했다(Wicksteed, 1910, pp. 102-104; pp. 320-321). 유량으로서의 공급은 순간 공급률의 시간 적분, 또는 주어진 기간과 평균 공급률의 곱이라는 것이다.

이 없다고 서문에서 밝힌 Ely의 『경제학 개요』 3판에서도 공급곡선이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특정 시각에 공급될 수량”과 가격의 관계다(Ely et al., 1916, p. 164).<sup>10)</sup> 이런 혼란은 그 무렵 발표된 Knight의 논문에서 반복된다. 그에 따르면, 수요곡선과 함께 시장가격을 설명하는 공급곡선은 특정 순간에 제공하려는 수량과 가격의 가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Knight, 1917, pp. 68-70). 그 수량은 공급률도 유량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저량으로 명시하지도 않는다.

#### 4. 비율 아니고 등식

Smith의 『국부론』을 다시 인용하면, “개별 상품의 시장가격은 시장에 실제로 반입된 수량과 ... 수요 사이의 비율에 따라 규율된다.” 여기서 수요는 “그 상품의 자연가격을 지급하려는 사람들의 수요”다. 그런데 후학들은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량”을 상정하면서 수요의 개념을 바꿨다. 그보다 앞서 ‘공급’은 시장에 반입된 수량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이런 의미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 비율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Mill이 그 사실을 지적하면서 둘 사이의 동등을 가격 결정 원리로 제시했다.

Wayland의 『경제학 요론』에는 Mill이 이러한 비판의 대상으로 인용할 만한 구절이 여럿 있다. 예컨대

공급과 수요 사이의 비율이 틀어지면, 그 이유가 공급 변동이든 수요 변동이든 상관없이, 그 결과는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지적해야 할 게 있는데, 공급과 수요 사이의 비율이 틀어지면서 생겨나는 효과는 여러 사정에 따라 더 크거나 작을 수 있다. (Wayland, 1837, p. 181)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요량을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도 “공급과 수요 사이의 비율”을 말한 것이다. Perry는 달랐다. Perry의 『경제학 요론』에서는 “공급과 수요 사이의 비율”은 찾을 수 없고, “공급과 수요의 동등”이 거듭 보인다.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규율된다고 말하지 않고 결정된다고 말하는 점에서도 Perry는 Wayland와 다르다.

10) 같은 책에서 저자는 부(wealth)와 관련하여 “특정 순간의 저량”과 “일정 기간의 유량”을 구별한다(p. 108).

Walker의 『경제학』을 비롯한 여러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공급의 의미가 “시장에 실제로 반입된 수량”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수량”으로 바뀐 뒤에도 “공급과 수요의 동등”은 가격 결정 원리로 제시되었다. 수요량만 아니라 공급량도 가격에 따라 바뀌는데, 그 두 수량이 같아지도록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Hadley의 『경제학』은 그것을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교차로 형상화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는 ‘동등’과 함께 ‘균형’도 종종 사용되었다. Ely의 『경제학 개론』에서 인용하면,

공급과 수요는 동등(equality)을 향하는데, 이 경향은 가격을 통해 작동한다. 공급과 수요 사이의 어떤 균형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올린다. (Ely, 1889, p. 179).

Taussig의 『경제학 원론』에는 이런 내용의 ‘균형’ 또는 ‘균형가격’이 서른네 번이나 등장한다.

Mill의 『경제학 원론』에서도 가격과 관련해서 ‘균형’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공급과 수요의 동등이 아니라 가격과 생산비의 동등을 가리킨다. Smith가 말한 “상품의 가격이 그것을 생산해서 시장에 가져오는 데 사용된 토지의 지대와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윤을 각각의 자연율에 따라 지급하기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 상태를 가리켜 균형이라 부른 것이다. 이와 달리 Hadley와 Taussig는 공급과 수요의 동등을 가리켜서도 균형이라 부른다. 이는 그들이 공급과 수요의 동등에 대해 더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며, 4절에서 보듯이 공급의 개념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이다.

### Ⅲ. 수요를 통해 가격으로 이어지는 효용

Smith는 물과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면서 교환가치의 크기는 사용가치의 크기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에 반해 Say는 효용을 가리켜 가치의 “원천”이라고 했다(Say, 1819; Say, 1821). Senior(1836)는 가치의 세 “필수요소” 가운데 하나로 효용을 꼽았다. Mill(1848)은 가치가 초과할 수 없는 “극한”을 효용이 규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로 공급과 수요의 비율 또는 등식을 제시했는데, 그 공급과 수요가 효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연결

이 분명해지는 것은 Jevons와 Walras의 한계효용이론을 통해서다. 19세기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도 다르지 않다.

## 1. 가치와 다른 효용, 효용 없는 수요

미국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로 꼽히는 Cooper의 『경제학 강론』은 Smith를 인용하면서도 ‘사용가치’로 쓰지 않고 ‘효용’으로 쓴다. 저자에 따르면, 사물의 자연적 효용에 인위적 효용이 더해지면서 가치가 생기는 만큼 “효용과 가치는 다르다(Cooper, 1826, p. 63).”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일으키는 가격의 일시적 변동”과 “궁극적으로 기초비용에 의해 규율되는 가격”에 대해 말하는데, ‘공급과 수요’든 ‘기초비용’이든 효용과 연결 짓지 않는다(Cooper 1826, p. 10; pp. 29-30).

Wayland는 『경제학 요론』에서 물품의 가치를 내재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눈다. 내재가치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힘이라면, 교환가치는 다른 것으로 바꿔 갖게 하는 힘이다(Wayland, 1837, pp. 5-6). 내재가치는 나중에 효용으로 부르기도 한다(Wayland and Chapin, 1878, p. 11). 그런데 효용 또는 내재가치가 곧바로 교환가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가령 철과 금을 비교하면, 내재가치는 철이 더 크고 교환가치는 금이 더 크다.

Perry의 『경제학 요론』과 Walker의 『부의 과학』도 빛 등을 예로 들면서 효용과 가치를 구별한다. 특히 Perry는 효용을 가치의 필수요소로 보는 듯하면서도, 가치가 효용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효용과 가치의 구별은 19세기 말까지도 나타난다. Macvane은 1890년에 출간된 『경제학의 작동 원리』에서 교환가치의 필요 조건으로 내재가치를 내세우면서도 두 가치 사이에는 그 밖의 다른 관계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19세기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가 강조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효용이 가치의 요소 또는 조건일지라도 둘의 크기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들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드러내는 생각도 있다.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공급과 수요는 효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요량’이란 개념이 통용되었지만, 이 개념과 효용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드물다. Perry도 『경제학 요론』에서 사람들의 구매 여부가 그들의 구매력과 성향에 좌우된다고 말할 뿐, 효용과 연결하지는 않는다(Perry, 1866, p. 69). 가치가 초과할 수 없는 극한을 효용이 규정한다는 Mill의 지적에서 연결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었으나 그런 시도는 없었다.

## 2. 한계효용과 가치

Jevons와 오스트리아학파가 전개한 한계효용이론이 얼마 뒤에는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소개된다.<sup>11)</sup> 특히 Jevons가 창안한 용어인 ‘최종효용’을 사용하면서 그것과 가격을 연결하는 교과서가 등장한다.<sup>12)</sup>

1871년에 Jevons의 『경제학 이론』이 출간되자 곧바로 서평을 발표했던 Newcomb은 14년 뒤 출간된 자신의 『경제학 원론』에서 최종효용과 가격의 관계를 설명한다.

[상품이] 잇달아 공급되면 그것의 효용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 추가 부분의 효용이 작아져, 사람들이 그 상품을 얻는 데 필요한 노동 또는 결여를 겪든 겪지 않든 다르지 않은 지점이 모든 상품에서 나타난다. Jevons 선생은 이를 **최종효용**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최종효용은 가격으로 측정된 가치와 의미가 같다. (Newcomb, 1885, p. 203)

교과서로서는 Walker의 『경제학』이 먼저 최종효용을 주요 개념으로 사용했다. 저자는 가치와 효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시장가격과 최종효용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Newcomb과 Walker 모두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요량’을 설명하면서도 최종효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1889년에 출간된 Ely의 『경제학 개론』도 다르지 않다. 1893년에 출간된 그의 『경제학 개요』는 한계효용체감을 좌표 평면 위의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내는데(Ely, 1893, p. 123), 이때도 그 곡선을 수요곡선으로 연결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계효용곡선을 그럴 뿐 수요곡선은 그리지 않는다. 효용과 수요의 관계에 대한 어떤 분석도 없다. 그저 상품의 가치는 그것의 한계효용이라고 단정할 뿐이다.

11) 당시 미국 경제학 교과서에서 한계효용이론과 관련하여 Walras는 아주 드물게 이름만 언급될 뿐이다. Ely, 1893, p. 394; Hadley, 1896, p. 79n 참조.

12)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은 Wicksteed가 『경제과학의 알파벳』에서 제안한 용어다(1888, p. 46). Jevons가 『경제학 이론』에서 미분계수  $\left(\frac{du}{dx}\right)$ 를 ‘최종효용도(the final degree of utility)’로 명명했는데(1871, pp. 60-61), 이것과 구별하여 차분( $\Delta u$ )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안한 것이다. 그 후 Marshall이 『경제학 원론』에서 ‘한계효용’을 채택하면서 널리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런데 Marshall은 이 용어의 출처로 Wieser를 지목한다(1898, p. 82). Wieser는 자신의 1884년 저서에서 ‘Grenz-nutz’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다.

### 3. 한계효용곡선과 시장수요곡선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한계효용 개념을 사용하여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요량’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나온다.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한계효용곡선으로부터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도출은 균일하지도 엄밀하지도 않다.

1896년에 출간된 『경제학』의 저자 Hadley에게 시장수요곡선은 “관찰된 인간 본성의 원리로부터 연역을 통해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Hadley, 1896, p. 79). 이 증명을 위해 저자는 우선 ‘페히너의 법칙’으로 불리는 감각과 자극 사이의 수량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한계효용의 체감을 그 법칙의 결과로 적시한다. 그런데 막상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하면서도 그런 한계효용의 체감을 전제하지 않는다. 저자의 연역에서 전제는 사람마다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상품의 효용이 가격으로 측정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람들의 구매량이 증가한다. (Hadley, 1896, p. 80)

이런 혼란은 개인이 느끼는 효용으로부터 곧장 집단의 수요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Hadley의 『경제학』 외에도 여러 교과서가 그런 도출을 시도했고, 여러 혼란을 드러냈다.<sup>13)</sup>

개인이 느끼는 효용으로부터 개인의 수요를 거쳐서 집단의 수요로 이어지는 연역에도 혼란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그 혼란이 더 잘 드러날 수도 있는데, 1900년에 출간된 Blackmar의 『경제학』이 그 예다.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어떤 물품에 대한 한 사람의 수요량을 나타내고 ... [세로축은] 각 수요량에 상응하는 가격을 나타낸다. ... 이것을 수요곡선이라 부르는데, 욕구를 만족시키는 물품의 힘이 떨어질수록 점차 직선 AX에 가까워지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힘이 오를수록 직선 AY에 가까워진다. (Blackmar, 1900, p. 297)

개인의 수요곡선을 한계효용곡선으로부터 도출하는 게 아니라 두 곡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런 혼란은 다른 교과서들에서도 발견된다.<sup>14)</sup>

13) Davenport, 1896, pp. 42-6; Bullock, 1897, pp. 111-2; Seager, 1904, pp. 66-7; Ely et al., 1908, p. 160-3 참조.

가격과 수요량 그리고 한계효용을 연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돈의 한계효용’을 도입하는 것이다.<sup>15)</sup> 앞에서 인용한 Hadley의 연역에서 “가격으로 측정되는 것”도 사실은 해당 상품을 한 단위 더 사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의 효용이다. 줄여 말하면, ‘돈의 한계효용’에 해당 상품의 가격을 곱한 것이다. Fisher는 1910년에 출간된 『경제과학 개론』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의 수요곡선과 한계효용곡선을 연결한다. 개인이 상품을 한 단위 더 사기 위해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그 상품의 한계효용을 돈의 한계효용으로 나눈 비율과 같다는 것이다(Fisher, 1910, pp. 260-6; 1911, pp. 265-71; 1912, pp. 287-94). 그리고 시장수요곡선은 그런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개인의 수요곡선 또는 수열 조합은 두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하나는 각 가격에서 구매하려는 수량이다. 다른 하나는 각 구매량에서 한 단위를 추가하기 위해 지급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돈인데, 이를 가리켜 ‘수요가격’으로 부르기도 한다.<sup>16)</sup> 개인의 수요곡선을 상품의 수량에 따라 바뀌는 수요가격으로 읽은 교과서 저자는 Fisher 외에도 많다.<sup>17)</sup> 특히 Fetter는 1904년에 출간된 『경제 원론』에서 수요가격과 한계효용을 연결하려 했다. 그렇지만 그 연결이 온전하지 않다. ‘돈의 한계효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Fisher는 바로 이 부분에서 Fetter를 비롯한 다른 여러 교과서 저자와 달랐다.

Fisher의 설명 방식은 1920년대 교과서의 표준이 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두 교과서가 모두 개인수요곡선의 수평 합으로 시장수요곡선을 도출하고, 개인수요곡선을 상품의 수량에 따라 바뀌는 수요가격으로 읽고, 수요가격을 상품의 한계효용과 돈의 한계효용 사이의 비율로 규정했다.<sup>18)</sup>

#### 4. 새 수요이론을 기다리며

수요가격과 한계효용을 이어주는 ‘돈의 한계효용’은 문제가 있는 개념이다. 한 상

14) Fetter, 1904, p. 29; Seligman, 1905, p. 66; Taylor, 1911, p. 141 참조.

15) Jevons는 가격과 구매량 그리고 한계효용을 연결하는 방정식에서 “돈의 효용”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했다(1871, pp. 141-2). Marshall도 수요의 법칙을 도출하거나 ‘소비자 잉여’를 정의하면서 “돈의 한계효용”을 사용했다(1891, pp. 152-3, pp. 182-3).

16) ‘수요가격’은 Marshall이 자신의 『경제학 원론』에서 시장수요곡선에 대해 사용한 용어다.

17) Fetter, 1904, p. 29; Seager, 1904, p. 98; Ely et al., 1908, p. 168; Taylor, 1913, p. 239 참조.

18) Fairchild et al., 1926, Chapter 16; Garver and Hansen, 1928, Chapter 9 참조.

품의 가격과 함께 구매량이 바뀌면서 그 상품에 대한 지출의 크기가 바뀌면, 그 상품에 지출하고 남는 돈의 크기가 바뀌면서 그 돈의 한계효용도 바뀐다. 소득 또는 총지출의 불변을 가정하더라도 ‘돈의 한계효용’은 상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반영하여 수요가격과 한계효용을 연결하려면 복잡해진다. 그래서인지 1920년대의 경제학 교과서는 ‘돈의 한계효용’을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그것의 불변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수요이론으로는 가격 변동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구분할 수 없고, 기펜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상품의 한계효용도 복잡해질 수 있는 개념이다. 한 상품의 한계효용은 그 상품의 소비량( $q$ )만 아니라 다른 상품들의 소비량( $r$ )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한 상품의 한계효용( $\phi(q, r)$ )과 돈의 한계효용( $m$ ) 사이의 비율로 그 상품의 수요가격( $p$ )을 규정하면서 수요곡선을 도출하려는 것은 셋 이상의 변수를 포함하는 하나의 방정식( $\phi(q, r) = pm$ )으로부터 한 변수( $p$ )를 다른 한 변수( $q$ )의 함수로 도출하려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상품의 소비량이 한계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수요이론으로서는 대체재나 보완재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 열등재의 존재는 더욱 설명하기 어렵다.

효용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념이다. 우선 효용의 측정 가능성이 문제다. 수요가격으로 한계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지만, 수요가격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수요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방법론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다. Fetter가 『경제 원론』 개정판에서 자신의 의도를 밝힌 대목을 인용하면,

가치이론을 완전히 새롭게 진술하고, 그럼으로써 벤담의 시대 이래 가치의 개념과 용어를 오염시켜온 옛 공리주의와 쾌락주의를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 효용 계산이 아니라 단순한 선택 행위에서 가치의 기초를 구상한다. (Fetter, 1915, p. ix)

Fetter에 앞서 Fisher가 ‘효용’을 버리고 ‘바람직성’을 선택한다고 선언했는데 (Fisher, 1910, p. 257), 그 이유는 두 저자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Fisher와 마찬가지로 Fetter도 용어와 표현만 바꿨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Doten, 1916). 경제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가치이론은 한계효용 체감의 가정을 한계대체율 체감의 가정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한계효용곡선



이 아닌 무차별곡선으로부터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경제학 교과서가 담기 시작하는 것은 1940년대다.<sup>19)</sup>

## IV. 공급과 생산 그리고 가격

생산비와 시장가격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Smith에서 Ricardo를 거쳐 Mill에 이르러서도 그대로다. 한 산업에서 시장가격이 정상이윤을 포함한 생산비에 비해 더 높거나 낮다는 것은 곧 그 산업의 이윤율이 정상보다 높거나 낮다는 것이며, 이윤율 균등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비정상은 자본 이동과 생산량 변동을 통해 시장가격이 생산비와 같아질 때 해소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비는 시장가격이다.<sup>20)</sup>

그런데 Marshall은 1890년에 출간된 『경제학 원론』에서 미묘하게 다른 가격이론을 전개한다. 그의 이론에서 시장가격은 생산비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시장가격처럼 시장가격도 균형가격이다. 공급량과 수요량의 동등이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공급량은 ‘시장에 들여온 수량’도 아니고 ‘팔려고 내놓은 수량’도 아니다. 그것은 ‘팔려고 생산하는 수량’이며, 단기 또는 장기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Marshall의 이러한 가격이론이 20여 년 사이에 미국 경제학 교과서의 표준이 되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 1. 상인의 공급과 생산자의 공급

2.2절에서 인용했듯이, 1883년에 출간된 Walker의 『경제학』에서 공급은 “각각의 가격에 제공되는 상품의 수량이다.” 그리고 “수요와 연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재고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공급이다.” 이때 생산비는 시장가격이며,<sup>21)</sup> 이윤율 균등의 원리가 시장가격을 그것으로 이끈다. Walker에 앞서 공급을 ‘판매를 위해 제공되

19) 무차별곡선으로부터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교과서로는 1941년에 출간된 Meyers의 『현대경제학 요론』 개정판이 미국에서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1938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Benham의 『경제학』은 부론에서 무차별곡선을 사용했다.

20) Smith와 Ricardo처럼 Mill도 ‘자연가격’으로 쓰는데, Cairnes는 1874년에 출간된 『경제학의 선도 원리』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꿔 쓴다.

21) Walker는 Cairnes가 그랬듯이 ‘자연가격’을 버리고 ‘시장가격’으로 쓴다.

는 수량'으로 정의했던 Vethake를 인용하면, “시장가격은 이윤율을 결정하는 그 가격을 중심으로 지속해 변동하고, 항상 그것과 같아지려는 경향을 보인다(Vethake, 1838, p. 57).”

이 두 교과서만 아니라 19세기 교과서 대부분에서 시장가격과 비교되는 정상가격은 생산비의 다른 이름일 뿐이며, 시장가격이 생산비에 비해 더 높거나 낮으면 생산이 늘거나 준다. 그리고 생산은 공급을 통해서 수요와 만날 뿐이고, 그 자체가 공급으로서 수요와 직접 만나지는 않는다. 1908년에 출간된 Ely의 『경제학 개요』 개정판도 이 점에서 다르지 않다.

가격이 생산비와 같아지려는 이 경향 때문에,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을 정상가치라 부르는 것이다.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데, 정상가치가 가리키는 것은 오직 경향이다. 시장의 실제 가격이 아니다. (Ely et al., 1908, p. 172)

그런데 1896년에 출간된 Hadley의 『경제학』에는 달리 읽힐 만한 부분이 있다.

우선 상인들의 **산업적** 경쟁을 통해 수요가 공급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절된다. ... 이러한 일시적 조절은 시장가격으로 귀결된다. 그리고서는 투자자들의 **산업적** 경쟁을 통해 수요에 대해 공급이 영구적으로 조절된다. ... 이러한 영구적 조절으로 정상가격에 가까워진다. (Hadley, 1896, p.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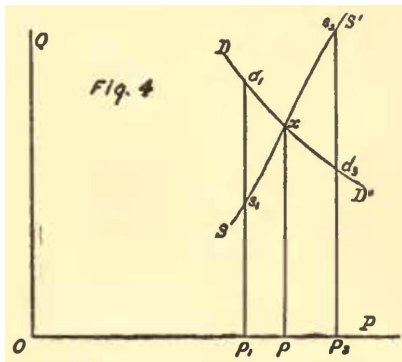
투자자들의 산업적 경쟁은 자본 이동으로 나타날 텐데,<sup>22)</sup> 그에 따른 생산 변동을 가리켜 저자는 ‘공급 조절’로 쓴다. 상인의 공급과 구별해서 생산자의 공급에 관해 말하고 있음이다.

Hadley가 두 가지 공급을 구별한다는 것은 그가 그린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상인의 공급과 생산자의 공급을 각각 그림 1과 2에서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형상화한다. 그림 1은 시장가격에 관한 것으로서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다. 이때 공급은 판매하려는 수량이며, “가격이 너무 낮으면 상인들이 재고 일부의 판매를 보류한다(Hadley, 1896, p. 81).” 그림 2는 정상가격에 관한 것인데, P1

22) 산업적 경쟁과 상업적 경쟁의 구별은 Cairnes가 먼저 했다. “**산업적 경쟁**은 서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생산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임금과 이윤을 희생에 상응하게 만든다. 이에 반해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쟁은 가격의 균등을 가져오는데, ‘**상업적 경쟁**’이라 부를 수 있다(Cairnes, 1874, p. 363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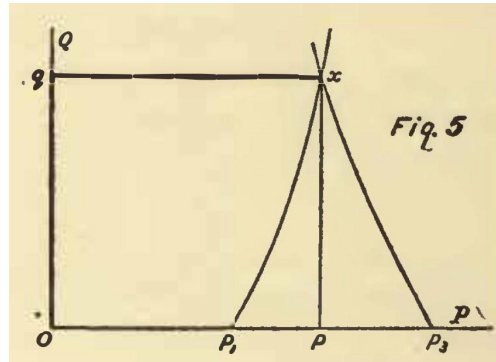
에서  $x$ 로 이어지는 곡선은 생산비가  $OP_1$ 보다 높은 “생산자들이 구성하는 총공급”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곡선은 산업의 한계생산비 곡선인 동시에 “정상공급 곡선”이고,  $P$ 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동등이라는 균형 조건을 충족하는 가격이다(Hadley, 1896, p. 90; p. 91n.).

<그림 1> 상인의 공급



자료: Hadley, 1896, p. 81

<그림 2> 생산자의 공급



자료: Hadley, 1896, p. 90

경제학 교과서에서 정상가격의 내용으로 ‘균형’에 더해 ‘장기’가 포함되는 것은 한참 뒤다. Taylor는 1911년에 출간된 『경제학 원론』에서 ‘시장공급’과 ‘정상공급’을 구별하여 제각기 수열 조합으로 나타내는데, 정상공급은 “생산자들이 **장기에**(in the long run) 제공하려는 것”이다. 정상가격을 장기균형가격으로 규정한 것이다(Taylor, 1911, p. 183). 같은 해 출간된 Taussig의 『경제학 원론』도 때로는 ‘정상가격’으로 쓰고 때로는 ‘장기가격(long-run price)’으로 쓴다(Taussig, 1911, pp. 184-6). 생산자의 공급에 ‘장기’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독자들이 알기 어렵다. 정상가격이 **장기균형가격**이고 정상공급이 **장기공급**이라면, 시장가격과 시장공급은 무엇인지도 알기 어렵다. 저자의 설명이 없지 않지만 명료하지 않다. 다른 여러 교과서도 이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처럼 정상가격이 장기균형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면서 시장가격을 두고서는 혼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해소하려는 Knight의 논문이 역설적으로 혼란의 사례가 되어준다. Knight에 따르면, 정상가격에 관한 좌표 그림에서는 세로축이 일정 기간의 수량을 나타내는 데 반해, 시장가격에 관한 좌표 그림에서는 세로축이 특정 시점의 수량을 나타낸다(Knight, 1917, pp. 68-71).<sup>23)</sup> 마치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공급과 수요는 유량이고,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공급과 수요는 저장인 듯이 말하고 있다.

## 2. 생산자의 공급곡선

생산비의 다른 이름이 아닌, 균형으로서의 정상가격이라도 생산비와 무관할 수 없다. 한계효용에 맞춰 수요가격이 결정되듯이 생산비에 맞춰 공급가격이 결정되며, 두 가격의 동등이 균형 조건이다. 그리고 만약 생산량에 따라 생산비가 바뀐다면,<sup>24)</sup> 공급량에 따라 공급가격이 바뀐다. 공급이 수량-가격 좌표 위에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한 산업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란 무엇인가? 그 산업을 구성하는 개별 생산자의 생산비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다른가? 이 물음에 관한 경제학 교과서의 답이 고르지 않다.

Marshall은 『경제학 원론』에서 생산비를 생산요소에 대한 생산자의 지출로 정의하고,<sup>25)</sup> 규모 수익을 기준으로 산업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각 유형의 공급곡선을 수요곡선과 함께 그렸다. 예컨대 규모 수익 체증은 생산비 체감을 의미하므로 해당 산업의 공급곡선이 우하향한다.<sup>26)</sup> 그렇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규모 수익 불변 또는 체감이므로 공급곡선이 수평이거나 우상향한다.

각 유형의 공급곡선을 수요곡선과 함께 그린 Marshall의 세 그림은 1911년에 출간된 Taussig의 『경제학 원론』에 재현된다. 그보다 3년 앞서 출간된 Ely의 『경제학 개요』 2판에는 세 유형의 생산비곡선만 그린 그림이 있다(그림 3). 저자가 세 곡선을 가리켜 “장기공급곡선”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수요곡선과 함께 그리지는 않는다(Ely et al., 1908, pp. 173-175). 그리고 저자는 오로지 생산비로 정상가격을 설명한다. 공급량과 수요량의 동등이라는 균형 조건으로 정상가격을 설명하지 않는다.

Ely와 달리 Taussig는 세 유형의 공급곡선을 수요곡선과 함께 그리고,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정상가격을 설명한다(Taussig, 1911, pp. 170-198). Taussig는 규모 수익 불변의 경우를 먼저 설명하는데, 이때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의 경로를 밝히지 않는다. 한 산업의 공급 증가는 새 생산자가 진입한 결과일 수도 있고, 기존 생산자가 생산을 늘린 결과일 수도 있다. 기존 생산자가 생산을 늘려도 생산비가 오

23) Knight도 Hadley처럼 가로축이 가격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수량을 나타내는 좌표 위에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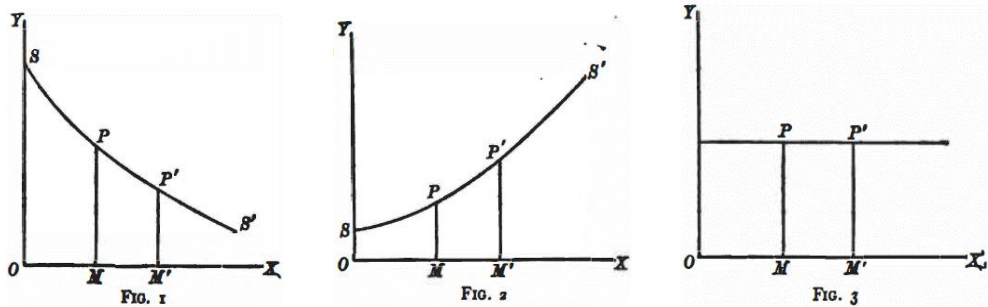
24) Mill은 생산량이 늘면서 한계생산비가 증가하는 산업으로 농업을 지목했다. 이에 비해 제조업은 생산량이 늘어도 단위 당 생산비가 일정하리라고 생각했다(Mill, 1848, pp. 524-6).

25) Marshall이 정의한 생산비는 실질비용이나 기회비용과 구별된다.

26) 여기서 ‘규모’는 생산요소 사이의 대체를 허용하는 투입의 규모를 의미한다.

르거나 내리지 않으려면, 규모 수익 불변이 개별 생산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언급조차 없다.

<그림 3> 세 유형의 생산비 곡선



자료: Ely et al., 1908, p. 175

Ely의 『경제학 개요』는 더 혼란스럽다. 그의 첫 그림에서처럼 우하향하는 장기공급곡선은 규모 수익 체증 또는 생산비 체감의 가정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개별 생산자의 생산비 체감은 자연독점으로 이어지므로 완전경쟁의 가정과 양립할 수 없다. 개별 생산자의 생산비 체감이 아니라면 무엇이 산업의 생산비 체감을 가져오는가? 이에 대해 저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가능한 세 경우 가운데 하나가 생산비 체감이라고 단정할 뿐이다. 이에 비해 Taussig는 Marshall의 “외부경제”를 인용한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요소의 가격이 낮아지는 등의 이유로 생산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26년에 출간된 Fairchild의 『기초 경제학』과 비교하면, Ely의 『경제학 개요』와 Taussig의 『경제학 원론』에서 같은 허점이 드러난다. Fairchild는 개별 생산자의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으로부터 개별 생산자의 공급곡선을 도출하고, 그것들의 결합으로 산업의 공급곡선을 도출하되 새 생산자의 진입을 함께 고려한다(Fairchild et al., 1926, Volume 1, pp. 331-4). 그의 설명이 허술하고 틀린 부분도 있으나, 1920년대를 지나면서 정교해진 생산이론을 반영한 미래의 교과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V. 맺음말

19세기 초 미국 대학에서 경제학 강좌를 개설하면서부터 나온 경제학 교과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모로 바뀌었다. 경제학 교육의 성격과 방식이 바뀌고,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와 배우는 학생의 구성이 바뀌고, 경제학자가 만들어내는 이론의 내용과 형태가 바뀌니, 경제학 교과서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변화를 검토하되 범위를 가치이론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182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에서 출간된 경제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거기 실린 가치이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Smith의 『국부론』에서 가치이론은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로부터 시작한다. 그 원리의 핵심을 인용하면, “시장가격은 시장에 실제로 반입된 수량과 ... 수요 사이의 비율에 의해 규율된다.” 이 명제의 ‘시장에 실제로 반입된 수량’을 후학들이 ‘공급’으로 대체했다.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도 처음부터 이 용어를 채택했고,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공급’의 의미가 바뀌어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수량’이 되고,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량이 된다. 이러한 변이와 선별에는 Say의 『경제론』이 작용했을 것이다.

‘공급’과 함께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수요’를 두고서는 오래도록 혼란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교과서 대부분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와 각 가격에서의 수요량 증가를 구별하지 않고 둘 모두를 ‘수요 증가’로 썼다. 수요와 지출이 다르지 않다는 교과서도 있다. 이런 혼란은 수요곡선의 도움으로 쉽게 피할 수 있지만, 수요곡선이 교과서에 실린 것은 1890년대를 지나면서다. 수요곡선의 이동을 나타내는 그림을 교과서에서 보려면 10여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공급’의 의미가 바뀌고 ‘수요’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장가격에 대해 달리 기술하는 교과서가 1860년대 중반에 나온다. 공급과 수요 사이에서 ‘비율’은 맞지 않는 관념이라는 Mill의 지적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그가 말한 대로 공급량과 수요량의 ‘동등’을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로 제시한 교과서가 나온 것이다. 이 원리는 20여 년 후 교과서에서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으로도 불리고, 다시 수년 후 교과서에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교차로 형상화된다.

1920년대의 대표적인 두 경제학 교과서의 목차에서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균형가격을 설명한 뒤 그 수요곡선을 한계 효용곡선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이다. 도출 방식에서도 두 교과서가 같다. 시장수요곡

선에 앞서 개인의 수요곡선을 도출하는데, 이때 수요가격의 개념을 사용한다. 수요 가격은 상품의 한계효용과 돈의 한계효용 사이의 비율과 같다. 그리고 시장수요곡선은 모든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다. 이 방식은 1910년대 초에 출간된 한 교과서가 사용한 것이기도 하다.

한계효용에 앞서 효용이 있는데, 1870년대 이전의 교과서는 대부분 효용의 크기와 가치의 크기가 무관함을 밝히는 데 치중한다. 물과 다이아몬드에 대해 Smith가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1880년대 무렵의 일부 교과서는 상품의 가치가 그것의 한계효용과 일치한다고 쓴다. 그러나 한계효용이 가치로 이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다. 한편으로는 공급량과 수요량의 동등을 시장가격의 결정 원리로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가격과 한계효용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뿐이다. 한계효용 개념을 사용해서 ‘가격에 따라 바뀌는 수요량’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1890년대 교과서에서 비로소 볼 수 있는데, 그 시도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 1900년대의 경제학 교과서도 다르지 않다. ‘돈의 한계효용’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한계효용곡선과 수요곡선을 연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혼란스러운 ‘수요’가 정돈되고 한계효용과 연결되는 동안 ‘공급’은 의미를 하나 더 갖게 된다. ‘팔려고 내놓는 수량’을 가리키던 용어가 ‘팔려고 생산하는 수량’도 가리키는 용어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생산량과 생산비의 관계로부터 공급량과 가격의 관계가 도출되고, 기존의 공급곡선과는 다른 의미의 공급곡선이 그려진다. 이런 변화는 1900년대 전과 후의 교과서를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1890년에 초판이 나온 뒤 개정을 거듭한 Marshall의 『경제학 원론』이 있다.

각 산업의 생산량과 생산비 사이의 관계를 체증과 불변으로 나눈 것은 Mill이다. Marshall은 여기에 생산비 체감을 보태 세 유형으로 나눴고, 각 유형에 상응하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도출하여 그림으로 그렸다. 사실 한 산업에 대해 적절히 도출한 생산비 곡선은 그 산업의 공급곡선과 일치한다. 그런데 적절히 도출하는 게 간단치 않다. 한 산업의 생산량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 따라서도 바뀌고, 기업의 생산량과 별도로 산업의 생산량이 생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혼란은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여러 교과서에서 발견된다.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공급과 수요의 이론은 이처럼 적잖은 변천을 거쳤다. ‘공급과 수요’의 의미가 바뀌고, 새로운 분석이 더해지고, 이런저런 혼란이 해소됐다. 그리고 교과서마다 달랐던 기술 내용과 방식이 점차 같아졌다. 이런 변천의 부분적 결과를 1920년대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의 시장가격과 거래량을 공급과 수

요의 원리로 설명한 뒤, 한계효용 균등의 원리로부터 수요량과 가격의 관계를 도출하고, 이윤율 균등의 원리로부터 공급량과 가격의 관계를 도출한다.

1920년대 경제학 교과서와 비교하면서 지난 백여 년의 변천을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이 드러난다. 경제학 특유의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공급과 수요의 이론에서도 관철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1930년대 말까지는 완전하지 않다. 특히 한 산업의 공급을 개별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과 연결하는 분석이 허술하다. 한계효용의 개념을 통해 개인의 소비가 시장의 수요로 순조롭게 연결된 데 비해, 생산자의 선택이 시장의 공급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오랫동안 많은 혼란을 거쳐야 했다. 이 혼란은 오늘날에도 경제학도가 반복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진방(2011), 공급과 수요 그리고 윌리엄 손턴, *사회경제평론*, 36, 75-120.
- Benham, F. (1938), *Economics*, Sir Isaac Pitman & Sons.
- Blackmar, F. W. (1900), *Economics*, Crane & Co.
- Bullock, C. J. (1897),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economics*, Silver, Burdett and company.
- Cairnes, J. E. (1874), *Some leading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newly expounded*, Macmillan and Co.
- Carlyle, T. (1853), *Occasional Discourse on the Nigger Question*, 2, T. Bosworth.
- Cooper, T. (1826), *Lectures on the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D.E. Sweeny.
- Davenport, H. J. (1896), *Outlines of economic theory*, The Macmillan Company.
- Doten, C. W. (1916), Review: Economic Principles by Frank A. Fetter,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2), 343-346.
- Ely, R. T. (1889),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economy*, Chautauqua press.
- \_\_\_\_\_ (1893), *Outlines of economics*, Flood and Vincent.
- Ely, R. T., T. S. Adams, M. O. Lorenz, and A. A. Young (1908), *Outlines of economics*, Rev., The Macmillan Company.
- \_\_\_\_\_ (1916), *Outlines of economics*, 3, The Macmillan Company.
- Ely, R. T. and G. R. Wicker (1904), *Elementary principles of economics*, The Macmillan Company.
- Fairchild, F. R., E. S. Furniss, and N. S. Buck (1926), *Elementary economics*, The Macmillan Company.
- Fetter, F. A. (1904), *The principles of economics*, The Century Co.
- \_\_\_\_\_ (1915), *Economics, Vol. 1: Economic principles*, The Century Co.
- Fisher, I. (1896), What is Capital?, *The Economic Journal*, 6(24), 509-534.
- \_\_\_\_\_ (1907), *The rate of interest: its nature, determination and relation to economic phenomena*, The Macmillan Company.
- \_\_\_\_\_ (1910), *Introduction to economic science*, The Macmillan Company.
- \_\_\_\_\_ (1911), *Elementary principles of economics*, The Macmillan Company.
- \_\_\_\_\_ (1912), *Elementary principles of economics*, 3, The Macmillan Company.

- Garver, F. B. and A. H. Hansen (1928), *Principles of economics*, Ginn and Company.
- Gordon, S. (1982), Why Did Marshall Transpose the Axes?, *Eastern Economic Journal*, 8(1), 31-45.
- Groenewegen, P. D. (1973), A Note on the Origin of the Phrase, "Supply and Demand", *The Economic Journal*, 83(330), 505-509.
- Hadley, A. T. (1896), *Economics*, G. P. Putnam's Sons.
- Humphrey, T. M. (1992), Marshallian cross diagrams and their uses before Alfred Marshall, *FRB Richmond Economic Review*, 78(2), 3-23.
- Jevons, W. S. (1871),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Macmillan.
- Johnson, A. S. (1909), *Introduction to economics*, D. C. Heath & co.
- Knight, F. H. (1917), The Concept of Normal Price in Value and Distribu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32(1), 66-100.
- Macvane, S. M. (1890), *The working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E. Maynard.
- Malthus, T. R. (1827), *Definitions in political economy*, J. Murray.
- Mangoldt, H. (1863), *Grundriss der volkswirtschaftslehre*, J. Engelhorn.
-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and co.
- \_\_\_\_\_ (1891), *Principles of economics*, 2, Macmillan and co.
- \_\_\_\_\_ (1898), *Elements of economics of industry*, 2, Macmillan and co.
- Meyers, A. L. (1941), *Elements of modern economics*, 2, Prentice-Hall.
- Mill, J. S. (1848),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philosophy*, John W. Parker, West Strand.
- \_\_\_\_\_ (1869), Thornton on Labour and Its Claims, Part I, *Fortnightly Review*, 29, 505-518.
- Newcomb, S. (1885),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Harper & brothers.
- Page, A. N. (1980), Marshall's Graphs and Walras' Equations: A Textbook Anomaly, *Economic Inquiry*, 18(1), 138-143.
- Perry, A. L. (1866),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C. Scribner and company.
- Rau, K. H. (1826), *Lehrbuch der Politischen Ökonomie V.1: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C. F. Winter.
- Ricardo, D. (1817),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J. Murray.
- Say, J. B. (1803), *Traité d'Économie politique*, Deterville.

- \_\_\_\_\_ (1819), *Traité d'Économie politique*, 4, Deterville.
- Say, J. B. and C. R. Prinsep (1821),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Longman, Hurst, Rees, Orme, and Brown.
- Say, J. B., C. R. Prinsep, and C. C. Biddle (1821), *A treatise on political economy*, Wells and Lilly.
- Seager, H. R. (1904), *Introduction to economics*, H. Holt and Company.
- Seligman, E. R. A. (1905), *Principles of economics*, Longmans, Green, and Co.
- Senior, N. W. (1836), *An outline of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y*, W. Clowes and sons.
- Smith, A. (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W. Strahan and T. Cadell.
- Taussig, F. W. (1911), *Principles of economics*, The Macmillan Company.
- Taylor, F. M. (1911), *Principles of economics*, University of Michigan.
- \_\_\_\_\_ (1913), *Principles of economics*, 2, University of Michigan.
- Thornton, W. T. (1866), A New Theory of Supply and Demand, *Fortnightly Review*, 6, 420-434.
- \_\_\_\_\_ (1869), *On labour, its wrongful claims and rightful dues, its actual present and possible future*, Macmillan and Co.
- Thweatt, W. O. (1983), Origins of the Terminology “Supply and Demand”,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0(3), 287-294.
- Vethake, H. (1838),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P.H. Nicklin & T. Johnson.
- Walker, A. (1866), *The science of wealth*, Little, Brown, and company.
- Walker, F. A. (1883), *Political economy*, Henry Holt and Company.
- Wayland, F. (1837), *The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Leavitt, Lord & Company.
- Wayland, F. and A. L. Chapin (1878), *The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 Sheldon & Company.
- Wicksteed, P. H. (1888), *The alphabet of economic science*, Macmillan and Co.
- \_\_\_\_\_ (1910), *The common sense of political economy*, Macmillan and Co.
- Wieser, F. (1884), *Über den Ursprung und die Hauptgesetze des wirtschaftlichen Werthes*, A. Hölder.

<Abstract>

## **Evolution of the Parrot's Economics: 'Supply and Demand' Taught by Economic Textbooks in the Nineteenth Century\***

Hana Kyunghwan Ein\*\* · Jinbang Kim\*\*\*

'Supply and demand' is an economic term that may seem straightforward but can cause confusion. This was especially true over two hundred years ago, and it continued to be the case for a long time thereaft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term in the economic textbook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820s to the 1920s.

After its meaning was stabilized, 'demand' settled into a concept connecting consumers' utility maximization and market prices with the help of the marginal utility theory. Although this process took time, it was relatively smooth. In contrast, 'supply' underwent two shifts in meaning and experienced considerable confusion before finally settling into a concept that connects producers' profit maximization and market prices. This confusion persisted even in textbooks in the 1920s.

**Key words:** Economic education, Economic textbooks, Supply and demand

원고접수: 2023년 07월 11일

심사일: 2023년 7월 23일 ~ 2023년 8월 13일

게재확정: 2023년 08월 13일

---

\* This research has been supported by a grant from Inha University.

\*\*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Inha University (i\_was\_a\_car@inha.edu)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Inha University (jkim@inha.ac.kr)